

8월 8일 단행된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에 대하여 여야는 극단으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변화, 화합과 소통, 친 서민을 위한 젊고 활력 있는 개각"이라 본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친이(親李) 편중인사라고 규정하고 "장관급 총리와 총리급 장관을 기용한 최악의 개각"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나라당은 서민 출신의 40대 젊은 김태호 총리를 기용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기용한 점에서 친 서민적이고 변화와 화합과 소통을 위한 활력 있는 내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것이다. 또 민주당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라는 점과 중앙정치에 경험 없는 총리가 이재오 특임장관, 이규호 교과부 장관 등 실세장관들 속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에 중점을 두고 개각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평가와는 별개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번 개각의 성격을 보면 주요 정책 기조의 유지, 친정체제 강화, 그리고 포스트 이명박의 정치적 포석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번 개각에서 여야 간 공방이 되고 있던 천안한 사건 등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국방 정책,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기존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



불자 세상보기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 · 정치학

이명박 정부 3기 내각에 바란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등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와 여·야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그런 이견은 6·2 지방선거와 7·28 보궐선거를 통해 충분히 표출되었으며 어느 쪽이 일반적으로 승리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국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정책기조 자체보다도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추진방법에 관한 것이라 본다. 정치를 연극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정권이 상연하는 연극은 내건 이름과 주제가 그럴듯해서 선택

을 했는데 관객인 국민들이 보기에 배우들의 연기가 시원찮고 연극의 질이 관객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정상화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본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다. 새 내각은 국정현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당과 정당간의, 상대방의 관점에서 도 볼 줄 아는 넓은 마음으로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무자들

이 소신껏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에서 '백 시트 드라이빙'(back seat driving)이라는 것이 있다. 운전기사에게는 어디로 갈지 목표만 정확하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기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일일이 지시하면 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협력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지만 일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새 내각에는 너무 개성이 강한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를 대비하려는 생각을 비워야 하며 3기 내각이 차기 정권에 대한 사전 정치 작업의 성격에 갖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기 정권은 국민의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사회주의국가에서와 같이 미리 정해놓는 것은 아니다. 후임 지도자의 선출이 헌법 정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예외에 속한다. 역사는 인간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은 그 동안 벌려놓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 하고 헌법이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차질 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전념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퇴임 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설

개신교의 위험한 발상과 행보

개신교의 불교 폼퓌 행태가 갈수록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월 말 일간지에 광고를 내어 일제 때 불교계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많은 토지를 받았으니 하며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공표하던지 최근에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과하기는커녕 때를 쓰듯 하고 있다.

그 의도가 수상적이다.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의 삭감,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추진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줄게 편성되었으며, 불교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아예 취소됐다는 소식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심각한 문제다. 문화재·템플스테이·불교테마공원을 불교의 포교와 등치시켜서 보는 착시에 빠진 개신교계의 주장에 떠밀린 결과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예산이 줄어들어 겪을 당장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보유자

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사찰을 방문해 문화재를 감상하거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큰 미적 감흥을 느끼고, 또는 학술적 가치도 주목하기도 한다. 개신교의 일부 단체의 문제는 문화재와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유독 불교로만 보려는 데 있다. 이는 외눈박이의 세상보기이다. 사찰을 찾아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불교는 민족의 애환과 함께 했다. 그런 가운데 문화유산을 남겼다.

개신교의 주장 밑바닥에 깔린 기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것을 개신교의 프리즘으로 환원시키고 있으며, 이런 시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아전인수이며 자기당착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개신교가 우리 사회의 중요종교로서의 품격을 오래도록 갖추지 못할 것이다.

관심 뜨거웠던 간화선 국제세미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주최해서 열린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2, 13일 이틀간 세미나가 열린 동국대 중앙당은 청중들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였다. 학술행사에 매일 1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의 특성을 반영해 수행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자리를 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 행사를 취했다. 실감과 연구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어울려졌다

는 점에서 신선함을 주었다.

간화선의 전통은 한국에 유일하게 살아 있다. 인류를 위한 정신적·문화적 자산이다. 불교학술원이 이번 집회에 착안해 이번의 세미나를 열었듯이 한국의 선이 세계인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간화선 국제세미나가 일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간화선 국제세미나가 내년에도 계속 열려 인류의 빛으로의 가치가 더욱 발양되기를 바란다. 간화선의 세계화는 한국불교가 인류에 기여하는 길이다. 학교당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사부대중의 관심이 요청된다.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된 세상입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봉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 학업봉사, 문화봉사, 의료봉사 등, 직장인뿐 아니라 대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교생까지도 봉사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공원에서 옷을 맞춰 입고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해외봉사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야 비로소 자원봉사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을까요? 삶의 수준이 갑자기 향상되어서? 의식수준이 어느 날부터 높아져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봉사활동을 점수화시켜 여기 저기에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입시에는 봉사점수가 반영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봉사점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려 해도 일정점수 이상 봉사점수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봉사는 분명 자원봉사의 근본적인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란 글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남을 받들고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는 기본적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계속성, 이타성 등



사부대중 칼럼-자원봉사

이준서

동국대 학생경력개발원장 · 동국참사람봉사단장

봉사의 양적·질적 확대할때

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과물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봉사가 사회적으로 대중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음 한 구석은 허전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반 강제적(?)인 봉사 독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인구비율은 전 국민의 20%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봉사의 양적 확대가 아직도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봉사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학교에서 봉사를 학점화하여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비록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봉사를 했더라도 일단 한 번 접해보았다면 사회에 진출한 후에 기회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에 박힌 봉사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개발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나눌 수 있는 나만의 봉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그다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든, 지적 능력이든, 특정 기술이든, 금전적 여유든 상관 없습니다. 나눔을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행복을 느끼면 됩

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유한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여 나눔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동국대의 건학이념인 불교의 자비(慈悲)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이나마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봉사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봉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으며 도덕과 윤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최근 승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 및 교직원들의 나눔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자비복지 협력활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아실현을 성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흥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제품

MSM Glucosid & Omega3 Cream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지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마르스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거만 하면 통증이 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팔꿈치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김달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Herbal Natural Toothpaste Gel **HERBAL BRITE**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뺨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 나빨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악균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하면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김달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